

호랑이, 지금 필요한 건 ... 스피드

KIA 선감독 “과감하게 뛰어라” 기동력으로 ‘공격야구’ 불붙여

호랑이 군단이 기동력으로 타선의 위기를 넘는다.

KIA 선동열 감독은 취임과 함께 타 이거즈 명가재건을 위해 ‘지키는 야구’에 ‘공격 야구’를 더하겠다고 밝혀왔다. 공격적인 승부, 뒷심의 야구로 타이거즈의 화끈한 야구를 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구 승부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호랑이 본성을 깨우기 위해 적극적인 승부를 주문하고 있지만 선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야구는 아직 진행형이다. 마운드 부상 대란 속에 타선이 제 자리 걸음을 하면서 어려운 4월을 보내고 있는 KIA는 기동력으로 위기를 넘고, 공격 야구에 불을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KIA는 김일권-이순철-이종범으로 이어진 대도 계보를 바탕으로 8개 구단 중 가장 먼저 3600도루를 달성한 팀이다. 화끈한 타력과 함께 기동력이 더해지면서 타이거즈 왕조가 구축됐지만

최근에는 스피드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2009년 113개의 도루로 전체 5위에 머물렀던 KIA는 2010년에는 117개의 도루에 성공하면서 8개 구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13개로 도루 부문 4위에 올랐지만 도루 시도율은 8.05에 그쳐 8개 구단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삼성은 158개의 도루(도루 시도율 11.06%)로 최강의 기동력을 과시했다.

선 감독은 올 시즌 선수 전원에게 ‘그린 라이트’를 부여 했다. 결과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껏 뛰라는 의미다. 1루를 지키는 김광호 코치도 타자들의 엉덩이를 밀어내고 있다.

김 코치는 “주자들에게 뛰어가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두려움 없이 뛰라는 얘기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다 보면 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기동력도 살아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루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톱타자 이용규가 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KIA의 기동력이 타선의 활로가 되고 있다.

17일 현재 KIA는 11차례 도루에 성공했다. LG가 14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KIA의 발야구가 이어지고 있다. 신종길이 2개, 안치홍·김선빈·김원섭 그리고 포수 차일목까지 도루를 하나씩 기록했다. 톱타자 이용규는 5개의 도루로 팀내 1위, 효과도 만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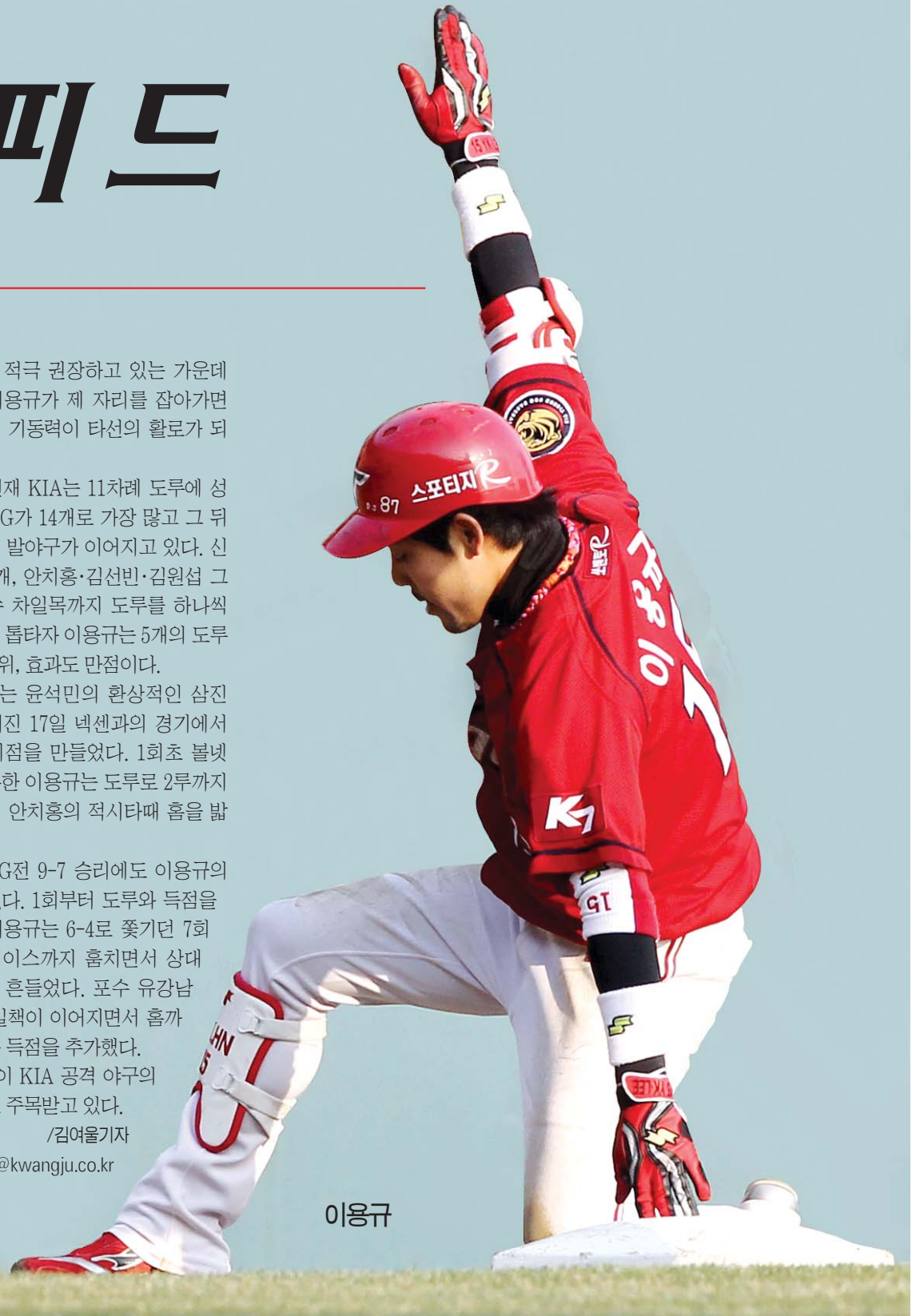
이용규는 윤석민의 환상적인 삼진쇼가 벌어진 17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발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1회초 볼넷으로 출루한 이용규는 도루로 2루까지 진루한 뒤 안치홍의 적시타때 홈을 밟았다.

14일 LG전 9-7 승리에도 이용규의 발이 있었다. 1회부터 도루와 득점을 기록한 이용규는 6-4로 쫓기던 7회초 3루 베이스까지 홈치면서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포수 유강남의 송구 실책이 이어지면서 홈까지 들어와 득점을 추가했다. 기동력이 KIA 공격 야구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일목



이용규

“프로야구 10구단 빨리 창단해야”

고교야구 감독들 건의

전국 고교야구 감독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조속한 창단을 포함한 야구계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18일 대한야구협회(KBA)에 따르면 전국 고교야구 감독들은 1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구본능 KBO 총재를 만나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선섭(광주일고), 최재호

(신일고), 강길룡(경기고), 김민호(부산고), 이종운(경남고), 송인식(청주고), 가내원(제물포고), 김성용(탐고) 감독 등이 전국 고교팀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야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제10구단이 조속히 창단돼야 하고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KBO총재(가칭)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창설할 것을 건의하면서 주말리그 활성화 등 아마추어 야구 발전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스킨십 축구’

선수·구단 SNS 활용 팬들과 실시간 소통

유니폼에 선수이름 대신 트위터 주소 새겨

광주 FC가 소셜마케팅을 통한 ‘스킨십 축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K리그 막내’ 광주 FC는 폐기의 축구로 2012시즌 그라운드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는 젊은 축구단다운 특색있는 매력으로 경기장 밖에서도 돌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창단 2년째를 맞는 광주는 대화를 막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평균 나이 23세의 젊은 팀. 광주는 선수들의 젊음과 신생구단의 이미지를 더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수들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 근황을 알리며 팀 홍보에 나서고 있고, 구단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뉴스를 전하며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올 시즌에는 국내 최초로 유니폼에 선수이름 대신 트위터 주소를 새겨넣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SNS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선수와 팬 그리고 구단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SNS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실시간으로 구단 소식도 알리고 경기 중계도 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년 전 840명이었던 김동섭의 팔로워는 현재 3000여명으로 늘었고, 이승기도 2000여명이 넘는 트위터 팬을 확보했다.

실시간으로 광주 소식을 받아 보는 팬들의 숫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고,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까지 합치면 2만여명이 넘는 이들이 SNS를 통해 광주를 응원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도 광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전 수비수 유종현과 이용 등은 공식 서포터즈 카페인 ‘빛고을’에 가입해 그룹 채팅을 하거나 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고 팬들과 함께 ‘스킨십 축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 FC 박병도 단장은 “SNS는 단순히 감성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이야기로 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진정한 소통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며 “광주가 K리그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이유는 구단과 선수, 서포터즈, 팬들이 서로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등 하나로 뭉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핵심수함’의 수안

넥센의 ‘핵심수함’ 김병현이 1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두산과의 경기에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김병현은 301년 동안 홈런포함 5개의 피안타로 5실점(3자책)을 기록했다. 삼진은 2개를 잡아냈다. /연합뉴스

추신수 2안타 2타점

시애틀 원정 승리 이끌어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타점 행진이 네 경기째 이어졌다.

추신수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방문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해 팀의 4연승을 도왔다.

추신수의 타율은 0.243(37타수 9안타)으로 다소 높아졌다.

추신수는 3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중견수 쪽으로 뺏는 타구로 1루를 밟았지만 다음 타자 카를로스 산타나의 1루수 땅볼로 더는 진루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5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좌익수 쪽 적시타를 때려 주자 두 명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추신수는 산타나의 3점 홈런 때 함께 홈을 밟아 득점까지 했다.

클리블랜드는 4회까지 1-8로 뒤지다가 추신수의 2타점을 비롯해 6회에만 7점을 뽑아 9-8로 역전승했다. /연합뉴스

50살 모이어 승리투수

MLB 최고령 기록 80년만에 경신

노장 메이저 모이어(50·콜로라도 로키스)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모이어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샌드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 7이닝 동안 6피안타 2실점(비자책)으로 개인 통산 268승을 거뒀다.

이날로 만 49세 150일이 된 모이어는 80년 만에 최고령 승리투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령 승리투수는 1932년 9월13일 만 49세 70일의 나이에 승리를 거둔 잭 킨(브루클린 다저스)이다.

7이닝 동안 87개의 공만 던져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모이어는 이날 주특기인 커터에 변화구까지 다양한 구종을 선보였다.

콜로라도는 이날 샌디에이고에 5-3 승리를 거둬 그의 기록을 지켰다. /연합뉴스